

불교의 음식공양, 그 식법(食法)에 대한 고찰

강항임*

- I. 들어가는 글
- II. 불교의 음식공양과 식법
- III. 불교 경전의 식법 제양상
- IV. 나가는 글

요약문

불교의 공양 중 특히 음식공양은 석가모니 재세시로부터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 없다. 정각을 위한 수행자의 신체유지에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음식공양과 관련되는 식법이라는 개념은 현재까지도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개념이다. 하지만 불교 경전에서 식법은 사소하게 다뤄지지 않는 개념이다. 초기불교 수행자들의 결식, 이 결식의 근거가 되는 사의법, 청정행을 계율로 여겨 사부정식을 따르지 않는 불제자들, 십이두타행에서의 음식과 관련되는 다섯 가지의 율의, 세간사식 및 출세간오식 등 수행자들의 음식공양과 관련되는 계와 율, 그리고 음식을 대하는 수행자의 마음가짐 등을 통틀어서 초기불교의 식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초기불교의 식법이 음식에 대한 계율 및 그 마음가짐에 초점이 있었다면, 대승불교에서의 식법은 법식(法食)으로 전개되어 음식 관법수행 등으로 발전하였고, 수행을 위주로 하는 밀교행자들에게는 율의적 식법이 더욱 강화되어 적용되었으며, 특히 밀교경계에 의거하여 삼부, 즉 불부·연화부·금강부 등에 음식을 공양한 것은 기존의 식법과는 다른 것이었다. 초기 대승불교 경전에서의 화공양, 육법공양 등은 만다라 작법을 통하여 삼부에 음식을 공양하는 의식으로, 『소실지갈라경』 및 그 공양법 등 초기 밀교 경전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중기 밀교경전인 『대일경』에서부터는 삼

*위덕대학교 강사, rinakang@uu.ac.kr

부 내지 오부(五部)에 공양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불교의 식법은 향후 ‘불교 식법의 체계’라는 명제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주제어 : 음식공양, 식법, 걸식, 세간사식, 출세간오식, 법식, 『소실지갈라경』, 『대일경』

I. 들어가는 글

공양(pūjā)은 불·법·승 삼보나 스승·부모·죽은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 신·구·의 세 가지 방법으로 공물을 바치는 것이다.¹⁾ 한국 불교에서 공양이라고 하면 삼보께 귀한 공물을 올리는 모든 과정을 말하거나, 불자들이 하루 세 끼 먹는 음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양은 원래 공물을 바칠 때에는 공양이라고 하고, 베풀 때에는 시식(施食) 또는 헌식(獻食)이라 하였으나, 이후 두 가지 경우 모두 공양이라는 개념으로 함께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공양이 그렇듯이, 음식공양은 특히 제공하는 자와 제공 받는 자 모두가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시주자는 온갖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공양하고, 받는 자 또한 최대한의 예절과 품격을 갖추어서 그 음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섭취해야 한다.

이처럼 음식공양 과정에서 서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예절에 대한 사안은 비록 초기불교 당시 수행자들의 식생활에 대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율장(律藏)이 존재하였지만, 음식공양과 관련되는 예규(禮規)로서의 표준안은 찾아볼 수가 없고, 다만 음식공양 전 세족법(洗足法)이나 청식(請食)을 마친 후 보시에 대한 축원이 있을 정도였으며, 음식공양 중 예절과 관련해서는 중학법(衆學法)에 의거해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²⁾ 중학법은 출가수행자들이 행·주·좌·와 모든 순간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을 계(戒)로서 제정한 것으로, 처벌의 강도가 약하여 스스로 참회하면 해결되는 규칙이었으므로,³⁾ 타율적인 식생활 규범으로 수행자

1) 지관 편저(1998), 『가산 불교대사람』 권1, 서울: 사)가산불교문화연구원출판부, p.1118.

2) 한수진(2019), 「한국불교 공양의례의 연원과 실제」, 『동아시아불교문화』 40,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pp.484-485 참조.

3) 오호연(유정, 2019), 「중학법(衆學法)의 엄처(念處)수행 상관성 재고(再考)」, 『불교학연구』 61, 불교학연구회, p.241 참조.

들을 규제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간이 경과하여 인도의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졌을 때 초기에는 인도와 마찬가지로 율장을 수행의 근간으로 여겼으나, 차츰 ‘청규(淸規)’로서 선원(禪院)의 규범으로 삼고, 식당작법(食堂作法)이나 예불 등의 의식이 유교적 윤리와 혼합되어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음식공양과 관련되는 예절 등은 7세기 이후 그 차제에 대한 작법화 등이 공양의례로 발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고려시대 밀교도량법회에서의 음식공양 관련 의식절차가 조선초기에는 전승되지 못하였으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 등의 상황으로 인해 다시금 밀교의식의 차제적 작법을 통한 민생안정 등을 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함으로써, 조선 중기 이후에서야 현재의 음식공양 의례의 형식이 정형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인도불교로부터 7세기 중국불교의 밀교 성행기 등 초기불교로부터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의 음식공양과 관련되는 계율 내지 사상 및 교학, 그리고 음식공양에 대한 예절 등에 상당하는 개념인 ‘식법(食法)’에 주목하였다. ‘식법’은 단지 오른손만을 사용해야⁴⁾ 하는 등의 음식 섭취시의 예절만을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라 음식을 대하는 수행자의 철학적 통찰과 음식을 통한 깨달음의 원리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불교의 음식공양이 나타나고 있는 불교 경전 등을 찾아 여러 가지 식법의 양상을 통하여 식법의 개념 정립을 도모하고, 또한 불교가 전개됨에 따라 변화·추가되는 식법의 제양상 등을 살펴서, 향후 불교의 식법이 현대적 생활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 줄 것이다.

II. 불교의 음식공양과 식법

음식을 경전에서는 ‘아하라(āhāra)’라고 하는데, 한역으로는 ‘식(食)’으로 번역되고, 영어로는 ‘nutriment(자양분)’라고 번역한다. ‘āhāra’의 어원을 분석하면 ‘ā√hr’에서 나온 용어이다. ‘√hr(harati)’는 ‘가져가다’라는 동사인데, 앞에 ‘ā’가

4) 義淨撰, 『南海寄歸內法傳』(T.54, 218a3), “西方食法唯用右手”

붙어서 반대의 의미인 ‘가져오다(āharati)’라는 말이 되었다. 그 ‘가져오다’의 명사형이 ‘āhāra(가져온 것)’이다.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이 임시적으로 결합된 존재[주체, 假我]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상경계[객체, 他者]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에너지원[食]을 섭취해야만 한다.⁵⁾ 이처럼 불교에서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자타불이(自他不二)의 교학에서 타인에게 공경을 표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음식공양이라고 할 수 있다.

석가모니 재세시 그와 제자들은 모두 결식(乞食)하였다. 재가자는 음식공양을 통해서 보시의 공덕을 짓고, 음식을 받는 수행자는 하심(下心)을 실천하는, 그야말로 범행(梵行)의 가장 근간을 차지했던 것이 결식이었다. 이와는 다르게 청식(請食, nimantrita)은 특정 수행자를 식사에 초대하여 음식을 공양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음식공양을 통해 수행자의 위이에 존경을 포함과 동시에 수행자와 교도라는 관계가 암묵적으로 형성됨으로써 초기 교단의 유지와 확장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재가자와 수행자의 관계성은 여래십호의 하나인 응공(應供)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마땅히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수행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몸의 유지를 위한, 그 시작이 음식공양이었던 것이다.

넓은 범위에서 음식공양과 관련해서는 예전 우리나라에도 존재하였던 탁발(托鉢)을 비롯한 발우공양(鉢盂供養), 출생식[生飯], 사시마지(巳時摩訶), 식당작법 등 승가의 의례적 공양과 사자(死者)의 영혼 등에까지 음식을 나누는 시식(施食), 헌식(獻食), 그리고 수행자에게 음식을 공양하는 반승(飯僧) 등 많은 음식공양 문화의 양상이 현재에도 전승되고 있는 것이 많다. 이러한 불교의 음식공양 문화는 교조인 석가모니 또한 한 인간으로서 그에게 공양하는 것이 중생이 영위하고 있던 음식과 다르지 않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즉 석가모니와 그의 제자들이 체력 유지를 위해 먹는 것이 곧 중생의 먹을 거리였기에, 재가자들은 정성을 다하여 그것을 공양하고, 또한 제 불보살과 육도의 중생들에게까지 공양하였던 것이다.

5) 신병삼(2007), 「초기불교의 아하라(āhāra)를 통한 수행 연구」, 『대각사상』 10, 대각사상연구원, p.508.

『청정도론(Visuddhimagga)』 「세상을 잘 아시는 분(세간해: Lokavidū)」에서 석가모니는 “하나의 세상: 모든 중생은 음식으로 생존한다(Ps.i.122).”⁶⁾고 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잘 아는 분인 세간해(世間解)로서 음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음식을 먹는 방법에 대한,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음식의 종류에 대한, 음식 및 취식 과정 전반에 대한 예절·규율·품격 등에 관한 금지와 허용의 규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각(正覺)을 원하는 수행자가 일상의 행주좌와(行住坐臥)나 의식 등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 즉 좌법·와법·식법 등에 있어서의 일정한 예법을 작법(作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식법은 간단하게 말하면 ‘식사시 지켜야 하는 예절’⁷⁾이다.

이와 같은 불교의 ‘식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통한 연구성과는 아직까지 학계에 발표된 적이 없다. 다만 음식공양이라는 대전제 아래 현재까지 불교 음식 및 공양과 관련되는 연구는 주로 불교의례라는 큰 범위에서 공양의례적 연구가 이루어지거나,⁸⁾ 절식·발우공양·육법공양·식당작법·반승, 그리고 약이 되는 음식 등 각각의 공양 양상에 대한 연구⁹⁾가 대다수를 이루었다. 최근에는 「동아시아 불교의 육미체계 연구」¹⁰⁾를 비롯한 「인도 종교의 음식문화와 심신 수행의 기제 연구」¹¹⁾ 등이 연구재단 수행 과제¹²⁾로 선정될 정도로 음식과 불교의 관

6) 붓다고사 저·대립 역(2009), 『청정도론』 1, 서울: 초기불전연구원, p.483.

7) 齋藤圓眞(1997), 『參天台五臺山記』 I, 東京: 山喜房佛書林, p.97 참조.

8) 김태수(2022), 「육법공양의 문헌적 전거와 그 사상적 의의-영산재와 수륙재를 중심으로-」, 『천태학연구』 25, 천태불교문화연구원; 정희명(2022), 「현교와 밀교 경전에 나타난 오공양과 육법공양의 원류에 관한 연구」, 『천태학연구』 25, 천태불교문화연구원; 한수진(2019), 「한국불교 공양의례의 연원과 실제」, 『동아시아불교문화』 40,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한수진(2021), 「중국과 일본선종 공양 의례의 실제와 특징 이해-행호율의·선원청규·영평청규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99, 한국불교학회; 한수진(2020), 「불교 계율에 나타난 식문화 연구: 인도·중국·한국에서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김미숙(2016), 「동아시아 불교의 음식 특징 비교-한국·중국·일본, 3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불교문화』 28,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조윤경(2021), 「다섯 음식의 비유와 5시의 불교」, 『한국불교학』 97, 한국불교학회; 공만식(2008), 「초기불교의 음식과 수행의 관계에 대한 고찰」, 『선문화연구』 4,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장승희(2018), 「초기불교 음식관의 윤리성과 도덕교육적 함의」, 『환경철학』 26, 한국환경철학회 등 많은 연구가 선행되었다.

9) 김성순(2019), 「동아시아불교의 발우공양 의례-보시와 자비의 각인」, 『민족문화연구』 8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이선이(2021), 「조선 후기 수륙재문에 나타난 불교음식 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90,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등 많은 선행 연구가 있다.

10) 공만식(2022-), 한국연구재단

련성은 여타의 종교에서 보기 어려운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불교의 교조 석가모니 또한 한 인간으로서, 그의 음식이 곧 중생의 음식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식법은 ‘식작법(食作法)’ 또는 ‘수식작법(受食作法)’ 등으로 불리는데, 『불광대사전』에서는 “식사에 즈음하여 행하는 작법이다. 출가자의 식사는 원래 절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있었다. 계율에서는 식법과 관련되는 다양한 제계가 있었다. … 율로서 정한 규정은 일일 일식으로 하고 정오를 넘긴 시간의 식사는 계율을 어기는 것이다. 식사할 때의 작법으로는 발우를 펼치고 음식을 받고 주(呪)로서 발원하고 발우를 닦고 법을 설하는 등의 제 규정이 있다.”¹³⁾라고 하였다. 『망월불교대사전』에서도 출가승들이 식사를 할 때는 차분하게 함께 규정을 엄정하게 지키면서 시주한 사람을 위해 주(呪)로서 발원하고 설법하여 자타의 법익을 장양케 한다는 등의 매우 자세한 식법이 기술되어 있다.¹⁴⁾

이처럼 식법은 출가승들이 중생이 제공한 음식을 섭취하고자 할 때 위로는 부처와 제 현성(賢聖) 및 시주한 사람에게 감사하고, 아래로는 삼악도(三惡道)의 중생에게도 공덕을 베푸는 일련의 규율이나 작법 절차에 따라 식사를 하는 것이 사전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식법의 사전적 의미만이 식법의 전부를 표현하지 못한다.

『십송율』에서는,

비구는 다섯 가지 음식을 먹는 때에 마땅히 음식은 구하기도 힘들고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고 관찰하도록 하라. 입안에 들어가고, 소장에 머물고, 대장에 머물고, 만약 밖으로 나오는 때에도 이것이 음식이라는 인연을 까닭으로 여러 종류의 번뇌와 죄업을 일으키고 고통의 과보를 받게 한다고 관찰하라. 이것을 식

11) 김미숙·이자랑·김재민(2014-2016), 한국연구재단

12) 김미숙(2013), 「불교 문헌에 나오는 음료용(飲料用) 장류(漿類) 음식 분석」; 이용대(2017), 「외국인의 한국사찰음식 인식 수준에 따른 체험만족도 차이 연구」; 장병주(2013), 「힐링푸드 사찰음식 이용객의 웰니스, 생활만족, 주관적 행복감, 삶의 질에 관한 연구-신체적, 정신적 웰니스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13) 慈怡 主編(1989), 『佛光大辭典』, ‘食作法’, 佛光出版社, p.4000.

14) 塚本善隆 主編(1973), 『望月佛光大辭典』, ‘食作法’, 世界聖典刊行協會, pp.1742-1743.

법이라고 이름한다.¹⁵⁾

세존께서는 다섯 종류의 음식을 허락하셨나니, 밥·보릿가루·말린 밥·생선·고기이다. 비구는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서 ‘몸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까닭이다.’라고 꺼리는 마음이 생겨나고, ‘삭삭식¹⁶⁾이나 별중식¹⁷⁾에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며, 또한 ‘잔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짓도록 하라. 이것을 식법이라고 이름한다.¹⁸⁾

라고 하였다. 이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식법에는 석가모니 재세시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불교와 함께해 온 음식공양의 이론과 실재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이러한 이해와 더불어 식법에는 불교의 사상과 교학 등이 함께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 경전의 ‘식법’은 ‘서역에서는 오른손만을 사용하는’ 등의 이른바 ‘식사예절’ 또는 ‘차제식법’ 등의 개념을 넘어서 음식을 대하는 수행자 등의 철학적·수행적 통찰, 그리고 음식과 수행자간의 전반적인 관계성 속에서 식(食)을 통한 깨달음의 원리까지도 포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Ⅲ. 불교 경전의 식법 제양상

이상에서처럼 불교의 음식공양은 석가모니 재세시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공양보다도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이에 걸맞게 음식공양 시 지켜야 하는 식법 또한 공양의 마음가짐에 비례하여 이상적인 원리가 존재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초기불교의 율의(律儀, samvara) 중심의 식법을 통하여 형성되고 전

15) 弗若多羅譯 羅什譯, 『十誦律』(T.23, 419c2-5), “食法者比丘食五食時應觀是食難求得難成辦當觀入口在生藏熟藏若出時由是食因緣故起種種煩惱罪業受苦果報是名食法”

16) 정기적으로 재가자의 음식공양을 받는 것을 말한다.

17) 승가 내에서 4명 이상의 비구가 재가자의 음식공양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18) 弗若多羅譯 羅什譯, 『十誦律』(T.23, 416a4-7), “食法者佛聽食五種食飯麩糲魚肉比丘食是食應生厭心爲存身命故念莫墮數數食別衆食又作是念受殘食想是名食法”

19) 한수진(2019)의 「한국불교 공양의례의 연원과 실제」(『동아시아불교문화』 40)에서는 ‘식법’이라는 개념은 사용되지 않았지만, 식사예절, 식사시 행동규범 등에 대한 심도있는 서술이 논문의 ‘들어가는 말’(pp.482-483)에 잘 나타나 보이고 있다.

개된 식법의 교학적 양상을 살펴본 뒤 대승불교에서 식법은 어떤 양상으로 변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지를 차례대로 살펴본다.

1. 초기불교의 계율 · 교학적 식법 양상

초기불교 내지 부파불교시대의 재가와 출가의 구분은 명확하였다. 출가의 목적은 모두가 최고의 과위(果位)인 아라한위의 증득이었다. 석가모니 또한 아라한으로서, 승단 구성원들을 통솔하고 스스로도 계와 율을 지키는데 솔선수범하였다. 석가모니가 입멸한 6세기 중엽 이후에도 그의 제자들은 석가모니의 유훈대로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법에 의지하여’ 출가자로서의 청정행을 닦아 재가자들의 모범을 보였던 것이다. 이러한 출가자들에 있어서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고 수행의 요체인 몸을 지탱하는 음식의 섭취는 그 어떤 율의보다도 중요성을 더했던 것이다.

1) 율의 중심의 초기불교 식법

초기불교 수행자는 의식주에 대한 율의가 특히 엄격하였다. 율의는 원래 자이나교 용어로서, 도덕적 규율을 통해 악행을 억제하고 선행을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음식공양 과정에서 서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예절에 대한 사안은 초기불교 당시 수행자들의 식생활에 대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율장(律藏)이 존재하였고 그 수칙은 엄격하였다. 초기불교시대 승단에서의 대표적인 음식 관련 율의 중 하나를 예로 든다면, 석가모니의 제자인 모든 청정 비구는 사의법(四依法)²⁰⁾에 의거해 걸식(乞食)으로 식생활을 영위하였고, 네 가지 사된 생계수단인 사부정식(四不淨食) 등은 하지 않았다. 사부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20) 사의법이란 의·식·주와 약(藥)에 관한 비구가 지켜야하는 계율을 말한다. 이를 사성종(四聖種)이라고 하였다. 사성종은 다음에 나타나고 있다. 舍利子說 玄奘譯, 『阿毘達磨集異門足論』(T.1536, 392b29-c21), “四聖種者 … 隨得衣服喜足聖種云何 答隨得衣服喜足增上 所生諸善有漏及無漏道 是名隨得衣服喜足聖種 隨得飲食喜足聖種云何 答隨得飲食喜足增上 所生諸善有漏及無漏道 是名隨得飲食喜足聖種 隨得臥具喜足聖種云何 答隨得臥具喜足增上 所生諸善有漏及無漏道 是名隨得臥具喜足聖種 愛樂斷修聖種云何 答愛樂斷修增上所生諸善有漏及無漏道 是名愛樂斷修聖種”

존자 사리불이 말하였다. 자매여, 모든 사문이나 바라문은 세간의 일에도 밝고, 횡법(橫法)에도 밝지만, 사된 방법으로 음식을 구하면 그가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하구식(下口食)을 하는 사람이다. 만일 모든 사문이나 바라문이 별자리를 우러러 관촬하는 사된 방법으로 음식을 구하면 그와 같은 사문이나 바라문은 양구식(仰口食)을 하는 사람이다. 만일 모든 사문이나 바라문이 남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된 방법으로 음식을 구하는 사람이면 그와 같은 사문이나 바라문은 방구식(方口食)을 하는 사람이다. 만일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의술과 방술로 갖가지 병을 치료하는 사된 방법으로 음식을 구하면 그와 같은 사문이나 바라문은 사유구식(四維口食)을 하는 사람이다. 자매여, 나는 이 네 가지 사된 방법으로 음식을 구하는 것에 빠지지 않고 다만 법으로써 음식을 구하여 스스로 살아갈 뿐이다. 그런 이유로 나는 네 가지 방법으로 음식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²¹⁾

이 내용은 『잡아함경』 「정구경(淨口經)」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다. 한 여자 사문 정구(淨口)가 사리불이 걸식한 음식을 나무 밑에 앉아 먹고 있을 때 사리불이 걸식하여 온 음식이 하구식인가 양구식인가 방구식인가 사유구식인가를 물었으나 사리불은 모두 아니라고 하고 석가모니의 제자들은 그러한 네 종류의 청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음식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부정식은, 양택(陽宅)이나 음택(陰宅) 등 하천한 지식을 통해 먹을 거리를 얻는 하구식, 점성술 등을 봐주고 먹을 거리를 얻는 양구식, 남의 심부름이나 뒷사람에 아첨하여 먹을 거리를 얻는 방구식, 점을 보거나 민간 의술을 통해 먹을 거리를 얻는 사유구식 등을 말한다.

또한 십이두타(dhūta)행²²⁾에서도 음식과 관련되는 다섯 가지, 즉 항상 걸식의

21) 求那跋陀羅譯, 『雜阿含經』(T.99, 131c09-132a12), “...尊者舍利弗言 姊妹 諸所有沙門婆羅門明於事者 明於橫法 邪命求食者 如是沙門婆羅門下口食也 若諸沙門婆羅門仰觀星曆邪命求食者 如是沙門婆羅門則爲仰口食也 若諸沙門婆羅門爲他使命邪命求食者 如是沙門婆羅門則爲方口食也 若有沙門婆羅門爲 諸醫方種種治病邪命求食者 如是沙門婆羅門則爲四維口食也 姊妹 我不墮此四種邪命而求食也 ...”

22) 두타(頭陀, austerities)는 원래 문자 그대로 '벗기다', '벗다', '깨끗하다' 등을 의미한다. 즉 무엇인가를 벗어던지는 것은 애착을 버린다는 뜻이다. 따라서 의식주에 대한 애착을 없애기 위해 고안된 금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두타의 생활규범에는 12조항이 있는데 이를 12두타행이라 한다. 1. 재아란야처(在阿蘭若處): 인가와 떨어져 있는 조용한 숲속에 머문다. 2. 상행걸식(常行乞食): 항상 걸식으로 식사를 해결한다. 3. 차례걸식(次第乞食): 걸식할 때 차별을 두지 않고 순서에 따라 한다. 4. 수일식법(受一食法): 하루에 한 번 식사한다. 5. 절량식(節量食): 자신의 양만큼 먹는다. 6. 중후부득음장(中後不得飲漿): 정오가 지난 후 즈미나 꿀 등도 먹지 않는다. 7. 착폐납의(着弊衲衣): 버려

로 음식을 구하는 상행걸식(常行乞食), 걸식 시 빈부의 차별없이 방문하는 집의 순서에 따라야 하는 차례걸식(次第乞食), 하루에 한끼만을 먹어야 하는 수일식법(受一食法), 발우 안에 있는 음식으로 만족하는 절량식(節量食), 정오가 지나면 음료나 당분류를 섭취하지 않는 중후부득음장(中後不得飲漿)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초기불교에서는 음식과 관련되는 율의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수행자들이 어떠한 경제적 활동이나 먹을거리를 구하기 위하여 청정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다만 걸식으로 생활과 수행을 병행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세간식과 출세간식의 분화와 취사

이상 수행자 중심의 율의의 식법과는 다르게 식법의 식(食)에 대한 관념은 시간이 지날수록 교학적으로 분화되기 시작한다. 불교가 존재와 인식의 중도라고 할 수 있는 연기법에 의해 지속되듯이, 식(食) 또한 오온이 먹는 것과 12처가 먹는 것으로서, 존재 유지를 위해 먹는 식(食)과 12처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먹는 식(食)으로 나뉘으로써,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에서, 수행의 원천인 색(色, rūpa)의 자양분과 해탈 내지 열반의 자양분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에너지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증일아함경』에서는,

일체제법은 식(食)으로 인하여 존재한다. 식(食)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 눈[眼]은 수면으로서 식(食)을 삼고, 귀[耳]는 소리로서 식(食)을 삼고, 코[鼻]는 향으로서 식(食)을 삼고, 혀[舌]는 맛으로서 식(食)을 삼고, 몸[身]은 감촉[細滑]으로서 식(食)을 삼고, 뜻[意]은 법을 식(食)으로 삼으며, 내가 지금 또 설하면, 열반에도 식(食)이 있다. 열반은 어떤 것을 식(食)으로 삼는가. 열반은 방일하지 않는 것을 식(食)으로 삼는다.²³⁾

진 옷이나 혈은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는다. 8. 단삼의(但三衣): 세 벌 외에는 소유하지 않는다. 9. 총간주(塚間住): 무덤 곁에 머물면서 무상관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10. 수하지(樹下止): 집에 대한 애착을 없애기 위해 나무 밑에 기거한다. 11. 노지좌(露地坐): 같은 이유로 나무 밑에 기거한다. 12. 단좌불외(但坐不臥): 항상 단정하게 앉아 있고 눕지 않는다. 求那跋陀羅譯, 『佛說十二頭陀經』(T.783, 720c3-721c6), “行此法者有十二事 一者在阿蘭若處 … 是爲十二頭陀之法”

23) 瞿曇僧伽提婆譯, 『增一阿含經』(T.2, 719a15-21), “一切諸法由食而存非食不存 眼者以眼爲食 耳者以

라고 하였다. 즉 눈은 편안한 수면을 자양분으로 삼아 안근(眼根)을 쉬게 하고, 귀는 고요한 소리로서 이근(耳根)을 맑게 하고, 좋은 향기를 통해 비근(鼻根)을 만족시키고, 달콤한 맛으로서 설근(舌根)을 즐겁게 하고, 부드럽고 매끄러운 감촉으로 신근(身根)을 새롭게 하고, 올바른 생각으로 의근(意根)을 정화하고, 나아가 무방일(無放逸)을 자양분으로 삼아 열반의 근을 간단없이 작동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식(食)은 몸이나 마음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초기불교의 식(食)에는 대표적으로 세간식과 출세간식이 있는데, 법장(法藏)이 쓴 『화엄경탐현기』에서는,

『아함경』에 의하면 출세간식에는 다섯 종류가 있다. 첫째는 선열식(禪悅食), 둘째는 원식(願食), 셋째는 염식(念食), 넷째는 해탈식(解脫食), 다섯째는 법희식(法喜食)이다. 세간식에는 네 종류가 있다. 이른바 단식(段食)·사식(思食)·촉식(觸食)·식식(識食)이 있다.²⁴⁾

고 하였다.²⁵⁾ 네 가지 아하라(阿賀羅, ahāra)는 먹는 음식[段食], 감각접촉의 음식[觸食], 마음속 의도의 음식[意思食], 알음알이의 음식[識食]이다.²⁶⁾ 이것이 세간사중식(世間四種食)이다. 이들은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단단한 음식과, 즐겁고 불쾌하고 중립적인 느낌을 지원하는 감각적·정신적 접촉과, 카르마를 생성하는 정신적 의지와, 개념 작용 당시 명색(nāma-rūpa)의 상태로서의 의식을 각각 가리킨다. 따라서 식(食)은 객체로부터 주체가 얻는 물질적·정신적 자양분이다. 그리고 세간사중식²⁷⁾ 중에서 단식과 관련되는 물질적 식법이 앞에서 보았던

聲爲食 鼻者以香爲食 舌者以味爲食 身者以細滑爲食 意者以法爲食 我今亦說涅槃有食 阿那律白佛言 涅槃者以何等爲食 佛告阿那律 涅槃者以無放逸爲食 乘無放逸得至於無爲”

24) 法藏述, 『華嚴經探玄記』(T.35, 58b25-28), “根迴向衆生 但依法食者 依阿含經 出世間食有五種 一禪悅食 二願食 三念食 四解脫食 五法喜食 永離揣食者 阿含世間食有四種 謂段思觸識”

25) 이에 대한 『증일아함경』의 내용은, “무릇 식의 9가지에는 4종의 인간식과 5종의 출인간식이 있다. …)라고 하였다. 세간식은 인간식, 출세간식은 출인간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瞿曇僧伽提婆譯, 『增一阿含經』(T.2, 772b14-20), “夫觀食有九事 四種人間食 五種出人間食 云何四種是人間食 一者揣食 二者更樂食 三者念食 四者識食 是謂世間有四種之食 彼云何名爲五種之食出世間之表 一者禪食 二者願食 三者念食 四者八解脫食 五者喜食 是謂爲五種之食”

26) 붓다고사 저·대림 역(2009), 『청정도론』 2, 서울: 초기불전연구원, p.225.

초기불교의 율의 식법의 대상이라면 사식·축식·식식은 정신적 아하라(āhāra)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른 출세간오종식(出世間五種食)의 선열식은 선정의 즐거움을 누리는 식(食)이고, 원식은 수행자가 번뇌를 끊고 보리심을 얻기 위해 원을 세워 정진하는 식(食)이고, 염식은 청정함을 한결같이 유지하고 지키는 즐거움의 식(食)이고, 해탈식은 생사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즐거움의 식(食)이고, 범희식은 불법을 듣고 이해함으로써 생겨나는 즐거움의 식(食)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오종식은 공히 선근(善根)과 혜명(慧命)을 증장시켜 물질적 식(食)의 즐거움을 멀리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선근과 혜명이 오종식의 에너지원인 것이다.

이러한 아함 가지 식(食)에 대하여 규기(窺基)는 『설무구칭경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함경』에서 설하는 식(食)의 아함 종류는 단·축·사·식과 선·원·염·해탈과 희이다. 앞의 사식(四食)은 항상 전념을 다하여 버려야 하고, 마땅히 끊임 없이 힘써 닦아 뒤의 오종출세간식을 즐겨야 한다.²⁸⁾

이처럼 세간식과 출세간식은 곧 속제(俗諦)과 제일의제(第一義諦)라는 교학으로 수행자에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식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아함경』 「대구치라경(大拘絺羅經)」에서처럼 “비구는 식(食)을 실답게 알고, 식(食)의 원인과 그 멸함을 알며, 식(食)이 멸하는 방법을 실답게 아는 것”²⁹⁾을 중요하게 보

27) 단식은 거칠거나 덩어리로 된 실제로 먹는 음식을 말하는데, 몸을 지탱하는 영양소로서의 기능을 한다. 축식은 눈 등 육입처에 접촉하는 ‘감각접촉의 음식’이다. 사식은 사념식이다. 마음 속의 온갖 기억과 생각 등 모든 의도한 음식을 말하는데, 삼계(三界)의 존재를 생기게 한다. 식식은 식(識)이라는 음식을 말한다. 알음알이, 즉 마음으로 아는 것의 음식으로 재생연결에 관계되는 물질과 정신을 생기하는 음식이다.

28) 窺基撰, 『說無垢稱經疏』(T.1782, 1094a8-11), “又阿含經說 食有九種 謂段觸思識禪念解脫及喜應常專念捨初四食 應勤修常業欣後五種出世間食”

29) 瞿曇僧伽提婆譯, 『中阿含經』(T.26, 461c24-25), “謂有比丘知食如眞 知食習(=集)知食滅 知食滅道如眞”

고 있다. 즉 수행자는 식(食)을 알기를 식(食)이 고(苦)임을 여실하게 알고, 식(食)의 원인과 그 멸함을 고(苦)의 집(集)과 그 멸(滅)임을 알며, 식(食)이 멸하는 방법이 고(苦)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간사식의 식법은 초기불교 수행자들이 아라한위를 증득하기 위한 현실적 식법이고, 출세간오식의 식법은 이상적이면서 궁극적인 식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대승불교 식법의 양상

대승불교의 성립은 인간이 붓다를 믿어 온 역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이 붓다가 되어 가는 역사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점은 석가모니 자신이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자신의 사상을 몸소 실천하고 성취했던 것처럼, 보편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붓다가 될 수 있다는 길을 재차 확인하고 실천하는 길을 모색하는 과정의 역사라는 사실이다.³⁰⁾ 이처럼 대승불교의 전개는 한사람의 붓다를 추앙하는 것을 넘어 여러 사람이 모두 붓다가 될 수 있음으로 전개되었다. 초기불교시대의 식법 또한 마찬가지이다. 초기불교 수행자와는 다르게 대승불교의 수행자들이 먹는 음식은 곧 또 다른 붓다를 장양하는 자양분이 되고, 이러한 음식은 곧 법신(法身)의 영양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대승불교의 식법은 법식(法食)으로의 전개로 이어졌고, 수행을 위주로 한 밀교행자들에게는 초기불교의 율의적 식법이 더욱 강화되어 적용되기에 이른다.

1) 식법의 대승불교적 법식화

『대지도론』에서는 돌발우(石鉢)에 대한 설이 나타나고 있다. 붓다께서 처음으로 이를 이루고 나서 공양하려 할 때 그릇이 필요하자 사천왕이 붓다의 마음을 알고 네 개의 발우를 붓다께 공양 올렸다. 붓다는 단월(檀越)이 주는 옷은 사람들의 의혹을 끊기 위하여 옷을 입었으나, 발우에 있어서는 허락하지 않았다. 세간에서는 돌발우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즉 값비싼

30) 김미숙(2016), 『인도불교사-붓다에서 암베드카르까지』, 서울: 살림, pp.59-60참조.

옷과 음식까지도 허락하였으나 유독 발우만큼은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³¹⁾ 이러한 ‘성문도(聲聞道)’와 ‘(대승의) 불도(佛道)’라는 붓다의 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문기를, 경에서 설한 것과 같이 “붓다의 금강신(金剛身)은 앙식(仰食)을 의뢰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발우를 가지는가? 답하기를, 불법에는 두 가지 도리가 있다. 하나는 성문의 도이고 다른 하나는 불도이다. 성문의 법에서는 붓다는 인간들의 법을 따라 음식을 먹는 경우가 있지만, 대승의 법에서는 방편으로 인간들을 위하여 음식을 먹지만 실은 먹지 않는 것이다.³²⁾

즉 붓다는 두 가지 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시 성문의 법도로 공양을 받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음식 제공자들을 안심시키고 기쁘게 하였다. 이것이 대승불교 식법의 한가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대승불교의 붓다는 단식(段食)을 취하지는 않지만 방편으로서의 식(食)을 취하는 것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여법한 식(食)으로서 불법(佛法)에 걸맞는 식(食)을 법식(法食, dharmāhāra)이라고 하였다. 즉 식(食)의 규칙과 조화를 통한 진리 통찰 등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던 것인데, 이것은 곧 제반의 식(食)의 과정을 통찰함으로써 수행의 완성인 불과(佛果)를 성취하기 위해 정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대승법식은 『유마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마치 현자가 크나큰 연민이 있기에 대성(大姓)을 버리고 가난한 걸식을 따르는 것과 같다. 이미 동등한 법시(法施)라면 행하는 바에서 두루 베풀어야 한다. 먹지 않을 수 있지만 연민 때문에 걸식을 하는 것이니, 다만 이를 말하지 않은 것과 같다. 만일 빈 마을에 머물러 들어간 마을에서 남녀를 제도하고자 한다면, 들어간 성읍에서는 그 종성(種姓)을 파악한 후 곧 가난한 집을 찾아 걸식을 행해야

31) 龍樹造 鳩摩羅什譯, 『大智度論』(T.25, 252c25-253a10), “問曰 若鉢應異衣何以同… 又閻浮提不好石鉢故無人與”

32) 龍樹造 鳩摩羅什譯, 『大智度論』(T.25, 253a18-22), “問曰 如經中說 佛金剛身不恃仰食 何以畜鉢 答曰 佛法有二道 一者聲聞道 二者佛道 聲聞法中佛隨人法有所食 噉 摩訶衍法中 方便爲人故現有所噉 其實不食”

한다. 모든 법에 대해서 받는 바가 없어야 하니, 마치 색깔을 보고도 장님처럼 하고, 소리를 듣고도 메아리처럼 하고, 냄새를 맡고도 바람처럼 해야 하고, 음식을 맛보아도 식(識)으로 분별하지 말아야 하고, 부드러운 감촉은 다시 즐기지 말아야 하고, 법을 아는 것도 허깨비와 같다고 해야 한다.³³⁾

이 내용은 곧 먹는 것에서 차별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법이 또한 평등을 얻고, 모든 법이 평등하므로 먹는 것이 또한 평등하다는 것이며, “경에서 말하는 법식은 세간의 법미이고 출세간의 법미이며 출세간 최상의 법미이다. 보살이 능히 일체중생을 위하여 큰 시주를 하여서 아직 발심하지 않은 자의 사법을 돌이켜 정법으로 들게 하고, 이미 정법에 든 자에게는 맹아를 증장케 한다. 마치 음식에 빛으로 풀을 키우는 것처럼, 부모가 비단 솜을 많이 쌓아 어린아이가 땅에 떨어져도 아프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오계십선을 주고, 이미 오계를 지닌 자에게는 삼계는 불길이 사나워 불에 탈 우려가 있음을 설함으로써 삼승의 계박없는 해탈을 찬탄한다.”³⁴⁾ 마치 번뇌를 땀감으로 여기고 지혜를 불로 삼아 수행자는 열반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대승법식인 것이다.³⁵⁾

관정(灌頂, 561-632)의 『관심론소』에서 『대반열반경』의 내용³⁶⁾을 초록하고 있는 부분 또한 마찬가지이다.

-
- 33) 支謙譯, 『佛說維摩詰經』(T.474, 522a10-16), “如賢者有大哀捨大姓從貧乞。當知已等法施普施於所行 已能不食哀故從乞 如不以言若住空聚 所入聚中欲度男女 所入城邑知其種姓 輒詣劣家所行乞 於諸法無所受 若見色如盲等 所聞聲如響等 所嗅香如風等 所食味不以識得 細滑無更樂 於識法如幻”
- 34) 智顓說 智顓錄, 『金光明經文句』(T.1785, 55b17-24), “經言法食 法食者世間法味 出世間法味 出世間上上法味 菩薩能爲一切衆生作大施主 令未發心者迴邪入正 已入正者增長萌芽 如陰陽養卉 如父母鞠子多積繪縮令墮地不痛 授以五戒十善 已持五戒者 說三界火猛多所燒害 讚歎三乘無繫解脫 已入證者 毀訾小乘敗種焦殺 讚歎菩薩所行之道”
- 35) 智顓說 智顓錄, 『金光明經文句』(T.1785, 55b17-28), “經言法食 法食者世間法味 出世間法味 出世間上上法味 菩薩能爲一切衆生作大施主 令未發心者迴邪入正 已入正者增長萌芽 如陰陽養卉 如父母鞠子多積繪縮令墮地不痛 授以五戒十善 已持五戒者 說三界火猛多所燒害 讚歎三乘無繫解脫 已入證者 毀訾小乘敗種焦殺 讚歎菩薩所行之道 設飢國人大王之膳 煩惱爲薪智慧爲火 以是因緣成涅槃食 令諸弟子皆悉甘嗜 如是等一切法門悉名法食 一法皆具止行二善 一善具因具緣 此諸因緣感長壽果 而我世尊行無不圓果無不滿”
- 36) 曇無讖譯, 『大般涅槃經』(T.374, 376b28-c3), “雖得出家 於此大乘不生貪慕 汝諸比丘 身雖得服袈裟染衣 其心猶未得染大乘清淨之法 汝諸比丘雖行乞食經歷多處初未曾乞大乘法食 汝諸比丘 雖除鬚髮未爲正法除諸結使 …”

너희 비구들은 비록 걸식을 행하지만 아직 대승법식에 들지 못하였다. 대승 법식이란 여래의 법희·선열로서 법희식은 곧 고르고 한결같은 큰 지혜이다. 일체의 법에 장애가 없음을 통찰하는 것이다.³⁷⁾

이와 같이 대승법식은 수행자가 음식을 대하는 철학적 통찰과 음식을 통한 깨달음의 원리까지도 확장된 것인데, 식생활 행위로서의 걸식을 통해 형이하학적인 원만한 몸을 유지했다면, 더 나아가 형이상학적인 장애 없는 통찰로 나아가는 것이 대승법식인 것이다.

이러한 대승법식은 실제 관법수행으로 나타나는데, 천태지의(538-597)의 「관심식법(觀心食法)」이 그것이다. 「관심식법」 품은 『만속장경』 제99책과 『치문경훈』 「천태지자대사관심송경법」에서 “무릇 식(食)은 중생의 외견의 생명이다. 만일 (그 내면을) 관하지 않으면 생사를 윤택하게 하고, 관하여 알게 되면 생사를 분별하여 그 경계를 알게 된다.”³⁸⁾라고 함으로써, 식(食)을 관법으로 승화시켰다고 할 수 있는데, 관법으로 식(食)을 취하여 반야식(般若食)을 성취하고 공가중(空假中) 삼제(三諦)로 인식하여 식(食)의 제법실상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대승법식은 식(食)의 모든 부분을 관하여 중도의 실상을 깨닫는 것이다. 몸 안에 있는 구식(舊食)을 무명번뇌로 여기고, 지금 취하는 신식(新食)을 반야의 지혜로 여기며, 반야식은 곧 법신을 장양함으로써 불가사의한 중도를 깨닫는 것이다. 이러한 식(食)을 관하여 법신을 이루는 것이 곧 ‘관심식법’인 것이다. 천태지의의 「관심식법」은 『치문경훈』 외에 담연(湛然)의 『지관보행전홍결』(T.46), 지반(志磐)의 『불조통기』(T.49), 법운(法雲)의 『번역명의집』(T.54), 충심(忠尋)의 『한광유취』(T.74) 등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심식법」은 천태지의가 밝히고 있는 관심송경법(觀心誦經法)에 이어서 식법을 관하여 제법실상을 깨닫는 방법을 설한 것이다.

37) 灌頂撰, 『觀心論疏』(T.1921, 605a12-15), “大經云 汝等比丘雖行乞食 而未得入大乘食法 大乘食者 如來法喜禪悅也 此之法喜即是平等大慧 觀一切法無有障礙”

38) 如壹續集, 『緇門警訓』(T.2023, 1082a15-17), “夫食者 衆生之外命 若不入觀即潤生死 若能知入觀分別生死有邊無邊”

2) 밀교경계의 식법 양상

대승불교는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 위에 있다. 그러므로 밀교에서는 육도(六道)의 삼악도 중생까지도 제외되지 않았다. 현교(顯敎)와 다르게 밀교행자는 의궤에 근거한 밀교의식 내지 삼밀관행(三密觀行) 등을 통하여 즉신성불(卽身成佛)에 이르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밀교의식 속에 음식공양의 포함은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음식공양이 밀교경계에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6-7세기 이후였다. 중국에서는 『소실지갈라경』, 『대일경』 등 밀교경전이 유통되면서 그 의궤에 따른 의식이 성행하였고, 음식과 관련되는 식법 또한 이러한 밀교경계를 기반하여 정착되어 갔다.

초기불교 이래로 음식공양은 출세간의 수행자에게 세간의 중생이 공양을 올리는 방식이었으나, 3세기 이후부터 시작된 밀교의 형성 및 당시 중국의 유교적 의례 등의 영향으로 밀교행자들이 의식을 통해서 삼부(三部), 즉 불부·연화부·금강부에 각종 공양물과 함께 음식을 공양한 것이 큰 특징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소실지갈라공양법』의 모두(冒頭)에 다음과 같은 귀명과 각종 공양법 등이 계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여래부에 속한 범보살들과 연화부와 금강부의 보살들과 아울러 모든 권속들에게 귀명합니다. 저는 이제 교설하신 공양하는 법과 지송하는 법에 따라 삼부에 통하는 차제와 상응을 간략히 살피겠습니다. … 사르는 향과 음식과 연등(燃燈)을 공양하는 법과 진언과 수인과 운심(運心)으로 공양하는 법과 … 이와 같은 여러 차제로 지금 간략하게 풀이하여 마칩니다.³⁹⁾

밀교행자는 가장 먼저 삼부의 불보살에게 귀명함으로써 존경을 표한 후 경전에서 설한 바대로 공양법과 지송법을 삼부의 순서대로 살핀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삼부에 대해서는 “불부 안에서 그 선은 흰색이고, 연화부 안의 선은 노란색이

39) 善無畏譯, 『蘇悉地羯羅供養法』(T.894, 692b6-c14), “歸命諸如來 及法菩薩衆 蓮花金剛部 并諸眷屬 等 我今依敎說 供養持誦法 省略通三部 次第及相應… 燒香及飲食 燃燈供養法 眞言并手印 運心供養法 … 如是等次第 我今略證竟”

며, 금강부 안의 선은 빨간색이다. 이와 같은 물건들이 몸에 갖추어져 있으면 작법이 가능하다. 경전과 부(部)에 따라 경전에서 설한 대로 이미 대계(大界)를 결계하였으면, 다음에는 반드시 공양해야 하는데, 그 성취 및 현상적인 부(部)의 차별에 따른다. 갖추어야 하는 바르는 향과 색깔과 맛과 향기를 그것과 상응하게 한다.”⁴⁰⁾라고 함으로써 밀교행자는 흰색의 불부, 노란색의 연화부, 빨간색의 금강부 만다라에서 도향(塗香), 화(華), 소향(燒香), 음식, 연등과 함께 차례로 삼보께 진언·수인을 곁하면서 공양을 올리고 자신을 법신불과 가지(加持)하는 것이다.

이처럼 『법화경』, 『화엄경』 등 초기 대승불교경전에서 화(華)공양, 육법(六法)공양 등의 공양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만다라 작법을 통하여 삼부에 음식을 공양올리는 의식은 『소실지갈라경』 및 그 공양법 등 초기 밀교경전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중기 밀교경전인 『금강정경』에서부터는 오부(五部), 즉 불부·연화부·금강부·보부·갈마부에 공양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만다라를 구성하는 각부에는 주존을 중심으로 협시존이나 보살이 동행하여 부족을 상징하려는 사상들이 진언, 수인, 도상, 지물 등을 통해 표현되어 있는데,⁴¹⁾ 삼부 내지 오부 부족에 음식공양을 올리는 의식은 각 부족 또한 법신불 비로자나의 화신이고 각 부족의 덕성이 모든 중생에게 미치므로, 재가의 음식을 향 등의 공양물과 함께 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소바호동자청문경』에서는 재가자가 밀교수행을 할 때 지켜야 하는 식법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다.

또한 소바호 동자야, 염송하는 사람이 재가 수행자일 경우라도 역시 삭발을 해야 하는데, 정수리의 머리카락만은 남겨두어야 한다. 착용하는 의복은 모두 적색이어야 하는데, 흑 흰 옷이거나 풀 옷을 입거나, 흑은 나무껍질 옷이거나 풀 먹인 베옷을 입어도 된다. 네 가지 응기(應器)를 가져야 하는데 나무나 철·옹기·바가지 등의 발우여야 하니, 아주 둥글고 매끈매끈하여서 일그러지지 않아

40) 善無畏譯, 『蘇悉地羯羅供養法』(T.894, 715b21-23), “於佛部中其線白色 蓮華部中其線黃色 金剛部中其線赤色 此等物備具在身 方可作法 依經依部 如經所說 結大界已 次應供養 隨其成就及事部別 所辦塗香色味香氣 與彼相應”

41) 정성준(2007), 『밀교학의 기초지식』, 서울: Eastward, p.107.

야 한다. 깨뜨리거나 새지 않게 해야 하며 반드시 이러한 그릇을 들고 차례대로 집집마다 걸식하여 음식을 충분히 얻었거든 깨끗한 샘이 있는 곳에 가서 물로 깨끗이 씻는다. 밥을 먹으려 할 때에는 먼저 발우 안의 음식을 털어서 다섯 등분으로 나눈다. 그 하나는 길을 다닐 때에 주린 사람을 만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고, 하나는 물 속 중생에게 베풀고, 하나는 육지 중생에게 베풀고, 하나는 위로 일곱 세대의 부모와 아귀 중생에게 베풀고, 다섯 번째는 충분하거나 충분하지 않거나 간에 자신의 몫으로 한다. 장차 먹으려 할 때에 이 발우 속의 음식을 보며 부정관(不淨觀)을 한 뒤에 먹는데, 다만 굶주림과 병만을 다스리는 것일 뿐 좋은 맛에는 탐착하지 말아야 한다. 먹기를 마쳤거든 개울이나 못이나 샘에 가서 깨끗이 씻고 입을 행구며 버드나무 가지로 이를 닦고서 물에서 나와 옷을 입고 도량에 들어간다. 절을 세 번 하여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발원을 마치고는, 도량에서 나와 곧장 경행하되 세 번이나 다섯 번, 혹은 열 번을 돈 뒤에 『대반야바라밀다경』을 독송한다.⁴²⁾

이 내용은 재가 수행자가 도량에서 수행할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재가 수행자도 삭발해야 하고, 적색의 옷을 입고, 네 가지의 발우를 가지고, 차례걸식을 해야 하며, 발우 안의 음식을 다섯 등분[生飯五分]하여 식사를 한 후 부정관으로서 음식에 대한 탐착을 일으키지 않는 등의 식법을 이행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밀교경계에서는 초기불교의 식법보다도 더욱 금지하는 식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소바호 동자야, 시작도 없는 때로부터 이미 더럽혀졌던 중생의 몸은 깨끗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가 아닌,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써 청정하게 될 수 있다. 곧 악업을 끊고 선업을 닦으면 몸과 마음이 청정하게 될 수 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몸에 부스럼을 앓을 때 단지 병을 치료할 생각만으로 약을 바르듯

42) 輸波羅經譯, 『蘇婆呼童子請問經』(T.895, 720c23-721a8), “復次蘇婆呼童子 念誦人若是俗人 亦應剃頭唯留頂髮 所著衣服皆須赤色 或著白衣及以草衣 或著樹皮衣毳摩布衣 須持四種應器 木鐵瓦甕等鉢 極須團圓 細密無缺勿使破漏 應持此器次第家家乞食 得食足已 近於清泉之所 以水淨洗 其飯若欲食時 先出鉢中飯分為五分 一分准擬路行 飢人來者即是一分施水中衆生 一分施陸地衆生 一分施七世父母及餓鬼衆生 第五分足與不足自食 正欲食時 觀此鉢中飯 作不淨觀 然後食之 但療飢病勿貪美味 食訖了已 即向河池泉 清淨澡浴漱口以柳木揩齒 出水著衣 入其精室 禮佛三拜發願畢 即出淨室 便即經行三五十迴 然後讀大般若波羅蜜多經”

이 수행하는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도 이와 같이 굶주리고 목마름을 제거할 뿐 그 맛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또 비유해 말한다면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큰 사막에 들어갔는데 길이 아득히 멀고 배고픔과 목마름에 허덕이다 그 사람이 아들의 살을 먹는 경우에 처하게 되는 것처럼 수행하는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도 이와 같이 다만 굶주림과 병만을 제거할 뿐 그 맛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눈앞에 시주하는 자가 공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때에 마음속으로 부끄럽게 여기고 공양물을 먹기 어려워하여서 이 밥을 먹을 때에는 마치 아들의 살점을 먹는다 생각해야 한다.⁴³⁾

라고 하였다. 즉 오염된 몸을 청정케 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아닌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써 가능한데, 마치 피부병을 치료할 때 약을 쓰듯이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맛을 좇아 먹는 것이 아니라 기근과 갈증을 없애기 위한 최소한의 음식을 자신의 아들의 살을 도려내어 먹듯이 밀교행자는 음식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눈 앞에 음식을 공양하는 사람이 오는 것을 볼 때 또한 마음 속으로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느껴, 아들의 살을 먹는 심정으로 그 공양물을 먹어야 한다. 이처럼 밀교경전에는 또한 밀교행자가 공양을 올리는 물건에 대하여, “공양을 올리는 물건은 모두 향기롭고 맛있어야 한다. … 이 법을 행하면 모든 부처님께서 자비가 충만하여 환희하여 속히 성취할 수 있다.”⁴⁴⁾는 예에서처럼 만다라단에 공양을 올리는 밀교행자의 자세 또한 밀교의 식법이라고 할 수 있다.

밀교는 신구의 삼밀수행을 통한 현세에서 성불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것이 삼밀가지(三密加持)이다. 밀교행자의 삼밀가지는 곧 밀교경계의 규칙대로 실제 수행의 장(場)인 만다라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밀교행자는 현교 수행보다도 철저한 계행을 강조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은밀하고 폐쇄적인 수행을 이어가야 함을 감안해보면, 계행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밀교

43) 輸波迦羅譯, 『蘇婆呼童子請問經』(T.895, 721b20-28), “復次蘇婆呼童子 衆生無始已來垢穢之身 不由食淨 以身心淨故 斷除惡業修諸善法 方可獲得身心清淨 譬如有人身患瘡癬 但念除差 以藥塗之 行人喫食亦復如是 但除飢渴不樂滋悅 又譬喻云 如有人父子 入大砂磧 路遙迢遞 飢渴所逼 其人當食子肉 行者喫食亦復如是 但除飢病勿著其味 觀前施主持飯來時 心懼慚愧 施物難消 當食此餐如食子肉想”

44) 輸波迦羅譯, 『蘇悉地羯囉經』(T.893, 675a23-26), “所供養物皆須香美 其所獻食(…) 作此法者 諸尊皆得滋充歡喜 速得成就”

의 식법 또한 계율적인 사항을 더욱 강도높게 밀교 문헌에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IV. 나가는 글

본고에서는 불교의 여러 공양의 양상 중 음식공양에 초점을 두었다. 음식공양의 전반적인 율의적 선행연구는 이미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본고의 주 키워드인 식법에 대한 고찰은 많지 않다. 경전 이외에 식법에 대한 정의는 특히 일본에서 이루어졌으나, 본고에서는 그 자료 대신 경전에 나타나고 있는 식법의 해설에 중점을 두어 초기불교로부터 밀교경계의 식법에 이르기까지 그 특징적인 부분을 고찰하였다.

초기불교의 음식공양은 재가자가 출세간의 수행자에게 바칠 수 있는 최선의 공양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초기불교에서부터 계율로 지켜왔던 율장은 이러한 세간의 공양에 대한 출세간 수행자들의 의식주 전반을 규율하였다. 즉 승단에서는 사의법에 의거해 절식으로 식생활을 영위하였고, 사부정식은 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초기불교에서는 음식과 관련되는 율의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율의로서의 초기불교의 식법이라는 기반 위에 대승불교에서는 대승법식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대승법식으로의 전개는 초기불교의 불타관(佛陀觀)과 대비되는 대승불교의 법신관(法身觀)과도 무관하지 않다. 석가모니를 추종하고 모두가 그를 닦기 위해 노력했을 때의 식법과 수행자 각각이 모두 불성을 지닌, 누구나 붓다의 가능성이 있는 존재의 식법은 그야말로 대승방편으로서의 법식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불도(佛道)의 도리로서는 단식(段食)을 섭취하지 않지만 성문도로서 중생을 위하여 대승불교의 붓다는 단식을 섭취하였다. 그리고 대승법식의 최종 목표는 법희식과 선열식이었다. 이러한 대승법식은 단식의 미각적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취함으로써 얻게 되는 정신적·철학적 환희를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승법식은 식(食)의 모든 부분을 관하여 중도의 실상을 깨닫는 것이다. 몸 안에 있는 구식(舊食)을 무명번뇌로 여기고, 지금 취하는 신식(新食)을 반

야의 지혜로 여기며, 반야식은 곧 법신을 장양함으로써 불가사의한 중도를 깨닫는 것이다. 이러한 식(食)을 관하여 법신을 이루는 것이 곧 ‘관심식법’인 것이다. 천태지유의 「관심식법」은 『치문경훈』 외에 담연(湛然)의 『지관보행전흥결』(T.46), 지반(志磐)의 『불조통기』(T.49), 법운(法雲)의 『번역명의집』(T.54), 충심(忠尋)의 『한광유취』(T.74) 등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심식법」은 천태지유가 밝히고 있는 관심송경법(觀心誦經法)에 이어서 식법을 관하여 제법실상을 깨닫는 방법을 설한 것이다.

밀교의 식법은 물론 초기불교의 식법과 대승불교의 식법 및 대승법식 또한 모두 포섭하였지만, 법신 비로자나불을 교주로 삼아, 모든 불보살을 삼부, 즉 불부·연화부·금강부라는 부족 개념으로 구분하여 밀교행자는 그들을 공양하였는데, 각종 공양물과 함께 음식 또한 공양하였음을 보았고, 현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재가 수행자가 등장함으로써 밀교 수행은 승속(僧俗) 모두가 밀교행자가 됨을 보여주었다. 밀교의 식법에서 두드러진 것은 초기불교의 식법을 포섭하면서 보다 엄격해진 식법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참고문헌(References)

- 瞿曇僧伽提婆譯, 『增一阿含經』(T.2).
- 龍樹造 鳩摩羅什譯, 『大智度論』(T.25).
- 瞿曇僧伽提婆譯, 『中阿含經』(T.26).
- 法藏述, 『華嚴經探玄記』(T.35).
- 義淨撰, 『南海寄歸內法傳』(T.54).
- 求那跋陀羅譯, 『雜阿含經』(T.99).
- 曇無讖譯, 『大般涅槃經』(T.374).
- 弗若多羅譯 羅什譯, 『十誦律』(T.23).
- 支謙譯, 『佛說維摩詰經』(T.474).
- 求那跋陀羅譯, 『佛說十二頭陀經』(T.783).
- 輸波迦羅譯, 『蘇悉地羯囉經』(T.893).
- 善無畏譯, 『蘇悉地羯囉供養法』(T.894).
- 輸波迦羅譯, 『蘇婆呼童子請問經』(T.895).
- 舍利子說 玄奘譯, 『阿毘達磨集異門足論』(T.1536).
- 窺基撰, 『說無垢稱經疏』(T.1782).
- 智顛說 智顛錄, 『金光明經文句』(T.1785).
- 灌頂撰, 『觀心論疏』(T.1921).
- 如曇續集, 『經門警訓』(T.2023).
-
- 붓다고사(2009). 『청정도론』, 대림 역. 제1권 제2호, 서울: 초기불전연구원.
- 齋藤圓眞(1997). 『參天台五臺山記』, I, 東京: 山喜房佛書林.
- 김미숙(2016). 『인도불교사-붓다에서 암베드카르까지』, 서울: 살림.
- 정성준(2007). 『밀교학의 기초지식』, 서울: Eastward.
-
- 공만식(2008). 「초기불교의 음식과 수행의 관계에 대한 고찰」, 『선문화연구』, 제4권. 한국불교선리연구원, pp. 1-35.
- 김미숙(2016). 「동아시아 불교의 음식 특징 비교-한국·중국·일본, 3국을 중심으로」,

- 『동아시아불교문화』, 제28호.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pp. 415-440.
- 김성순(2019). 「동아시아불교의 발우공양 의례—보시와 자비의 각인」, 『민족문화연구』, 제85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 557-576.
- 김태수(2022). 「육법공양의 문헌적 전거와 그 사상적 의의-영산재와 수록재를 중심으로-」, 『천태학연구』, 제25권. 천태불교문화연구원, pp. 36-81.
- 신병삼(2007). 「초기불교의 아하라(āhāra)를 통한 수행 연구」, 『대각사상』, 제10호. 대각사상연구원, pp. 507-543.
- 오호연(유정) (2019). 「중학법(衆學法)의 염처(念處)수행 상관성 재고(再考)」, 『불교학연구』, 제61권. 불교학연구회, pp. 241-269.
- 이선이(2021). 「조선후기 수록재문에 나타난 불교음식 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90권.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pp. 263-298.
- 장승희(2018). 「초기불교 음식관의 윤리성과 도덕교육적 함의」, 『환경철학』, 제26호. 한국환경철학회, pp. 5-34.
- 정희명(2022). 「현교와 밀교 경전에 나타난 오공양과 육법공양의 원류에 관한 연구」, 『천태학연구』, 제25권. 천태불교문화연구원, pp. 126-156.
- 조윤경(2021). 「다섯 음식의 비유와 5시의 불교」, 『한국불교학』, 제97권. 한국불교학회, pp. 185-218.
- 한수진(2019). 「한국불교 공양의례의 연원과 실제」, 『동아시아불교문화』, 제40호.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pp. 481-521.
- 한수진(2020). 「불교 계율에 나타난 식문화 연구: 인도 · 중국 · 한국에서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한수진(2021). 「중국과 일본선종 공양 의례의 실제와 특징 이해-행호율의 · 선원청규 · 영평청규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제99권. 한국불교학회, pp. 199-235.
- 慈怡 主編(1989). 『佛光大辭典』. ‘食作法’, 佛光出版社.
- 塚本善隆 主編(1973). 『望月佛教大辭典』. ‘食作法’, 世界聖典刊行協會.
- 지관 편저(1998). 『가산 불교대사림』, 제1권. 서울: 사)가산불교문화연구원출판부.

ABSTRACT

A Study on Āhāra-dharma of food offering in Buddhism

Kang, Hyang-im
Rector, Uiduk Univ.

Among Buddhist offerings, the provide food and drink in particular must have been an important part since the time of Shakyamuni. It is the most necessary for maintaining the practitioner's body for correct enlightenment. The concept of Āhāra-dharma related to provide food and drink is a concept that still feels somewhat unfamiliar to this day. However, in Buddhist scriptures, Āhāra-dharma is a concept that is dealt with frequently. Begging for food of early Buddhist practitioners, the four seeds of holiness on which this begging for food is based, Buddhist disciples who do not follow the four uncleanness foods because they consider practicing purity to be a precept, the five restrains related to food in the twelve kinds of practices of intensified discipline, practitioners of the four worldly kinds of food and the five supramundane kinds of food, etc. It can be said to be the Āhāra-dharma of early Buddhism, including the precepts and rules related to food offerings, as well as the practitioner's attitude toward food. If these early Buddhist Āhāra-dharma focused on the precepts and mindset regarding food, the Āhāra-dharma in Mahayana Buddhism were developed into dharmic diet and developed into the practice of contemplating phenomena for the Dharma on food. For practitioners of esoteric Buddhism who focus on carry out or perform, the restrained Āhāra-dharma was further strengthened and applied, in particular, the offering of food to the three divisions, that is, Buddha-groups, a part of lotus flower, and vajra group, based on esoteric Buddhist scriptures, wa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Āhāra-dharma. In the early Mahayana Buddhist scriptures, offerings of flowers, six dharma offerings, etc. are rituals of offering

food to the three divisions through mandala rules of behavior, and began to appear for the first time in early esoteric scriptures such as *Susiddhi-tantra* and its offering method, and in middle period esoteric scriptures, from *Mahāvairocana-sūtra*, offerings began to be made to the three to five divisions. This kind of Āhāra-dharma for Buddhism seems to require additional research in the future under the proposition of ‘The Systematic of Buddhist Āhāra-dharma’.

Keywords : Food offering, Āhāra-dharma, Begging for food, Four worldly kinds of food, Five supramundane kinds of food, Dharmic diet, *Susiddhi-tantra*, *Mahāvairocana-sūtra*

투고 일자: 2023년 12월 22일

심사 완료: 2023년 12월 25일

게재 확정: 2023년 12월 26일